

기자의 언어 PD의 언어



CBS

김정훈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가 유튜브 콘텐츠로 진화하기 전 스튜디오 내부 모습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잖아.”

시사PD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들은 일부 기자들의 반응이다. 반대로 기자가 제작한 방송 리포트에도 시사PD들의 냉소적 평가가 내리쬄히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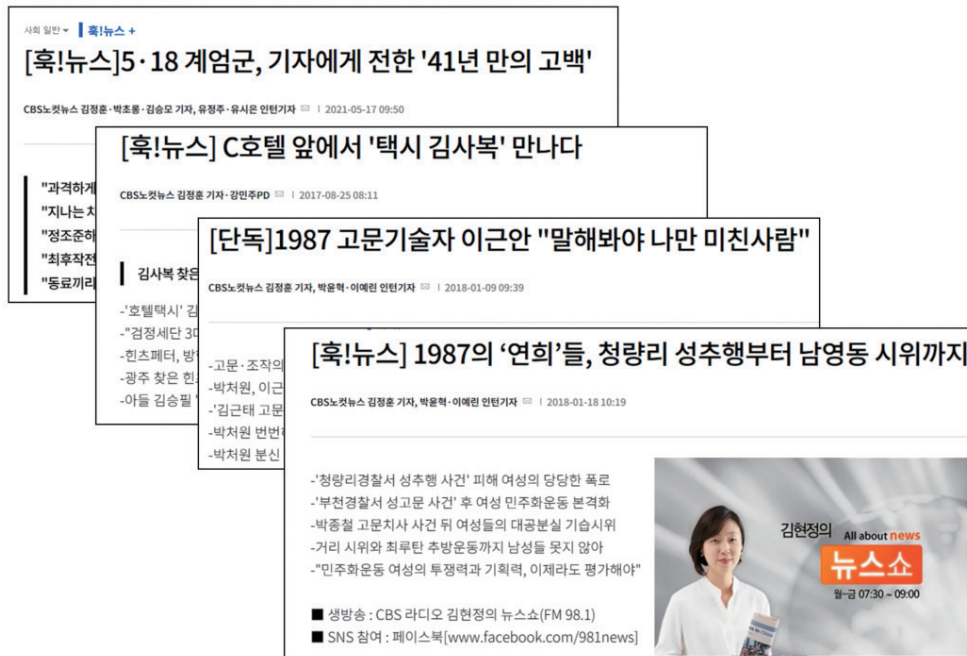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리네.”

두 가지 반응 모두를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건, 다양한 출입처의 기자로 지내다 2017년 여름부터 4년간 시사PD들과 호흡을 같이 해왔던 까닭이다. 필자는 출근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대명사 〈김현정의 뉴스쇼〉 스태프의 일원으로, 발군의 능력을 지닌 베테랑 시사PD들과 손발을 맞춰왔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2008년 탄생 때부터 ‘기자와 PD가 함께 만드

는 시사 프로그램’을 표방했다. 그 명맥을 잇기 위해 현재까지도 보도국 소속의 기자가 파견돼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방송 언론계에서 기자와 PD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0년에는 MBC가 PD와 기자를 한데 모은 뒤 두 직종의 명칭을 글자씩을 따 〈피자의 아침〉이라는 경쾌한 시사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하지만 몇 달 버티지 못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종영하고 만다. 기자와 PD의 어색한 동거 속에 별다른 시너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이 때문에 기자와 PD의 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은 더욱 굳어져왔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그 선입견을 반



〈김현정의 뉴스쇼〉팀 일원으로 출고한 기사 일부. 기자의 취재력과 PD의 구성력을 모았다.

드시 깨뜨리고야 말겠다는 듯 기자-PD 협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작팀 안에서 바라본 PD는 확실히 기자와는 다른 종족이긴 했다. 밖에서 볼 때는 다 같은 저널리스트이고 언론인이겠지만 두 직종은 물과 불처럼 다르다. 기자가 ‘이미 나온 얘기’라며 PD의 콘텐츠를 평가절하하는 건 기자에게 새로운 팩트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솔깃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사명인 PD 입장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팩트라도 전달력이 없으면 ‘짱’이다.

이처럼 각기 ‘Something new’와 ‘Something interesting’을 찾는 기자와 PD의 DNA는 시사보도 콘텐츠를 다

루는 과정에 전혀 다른 렌즈가 된다. 기자는 사람을 통해서든 자료를 통해서든 전에 없던 새로운 사실을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대로 PD는 대중이 가장 관심을 둘 만한 이슈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김현정의 뉴스쇼〉취재 담당 시절 내보인 기사들은 그 시너지의 산물이었다. 아이템 선정을 할 때는 PD와 함께 시청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확인했고, 출입처에서 생산되는 정형적 기사 형식에서 벗어나려 했다. 기사의 구성과 연출 면에서도 PD의 도움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협업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 직종은 각기 다른 DNA에 편중된 기질을 발휘하기 쉽다. 그리고



대표적 출입처인 국회 기자실 내부의 모습

이는 숲이 중요하나 나무가 중요하나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이어진다. 새로운 팩트에 목마른 기자는 아무래도 디테일에 치중하기 마련이다. 가령 뇌물 범죄 사건을 취재해 보도하더라도, 새롭게 드러난 전달책, 바뀐 금액이나 장소 등이 기자에게는 중대한 의미다. 작은 팩트 하나가 이후 어떤 실마리로 이어질지 모르는 까닭이다. 반면 당장에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할 PD에겐 디테일보다는 전체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뇌물 액수가 조금 변하든 전달책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든, 그것이 전체 스토리의 복잡성만 높이고 흥미는 낮춘다면 과감히 버린다. 대중은 하나의 이슈를 매번 업데이트 하듯 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숲을 보려는 PD와 나무를 살피려는 기자의 ‘습성’도 크게 다르다. PD가 종합적이라면 기자는 분석적이다. PD가 구축(構築)하려 한다면 기자는 해체(解體)하려 한다. 같은 이슈를 놓고도 PD는 완결된 이야기를 만들려 하고, 기자는 살을 발라내듯 하나하나를 뜯어낸다. 그렇다 보니 PD는 이야기의 완결성에 급급해 자칫 머릿속에 그려진 결론에 모든 것을 맞추는 우를 범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메스를 손에 든 기자는 본질을 놓치고 뻗어나가는 결가지만 훑는 함정에 빠질 공산이 있다.

기자와 PD의 역할과 기능이 이처럼 다르다 보니 그 둘 사이 아웅다웅 갈등과



결과를 짐작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한 추적과 기다림은 기자의 일상이다.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기자는 PD들이 온실 속에서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받기만 하는 이야기꾼일 뿐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질 이슈를 한발 먼저 꼽을 수 있는 선구안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진 않는다. 또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연출하는 능력은 기자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아울러 출입처 별로 또는 출입처 안에서 업무 강도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오가는 기자와 달리 시사PD들은 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대로 PD는 기자들이 출입처 안에 파리를 틀고 앉아 이슈의 선택과 집중도 못 한다고 답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는 기록될 가치와 전파될 가치가 있다면, 지금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안이라도 뉴스로 전한다. 사초(史

草)를 쓰는 사관의 입장에서 언젠가, 누구에게는 효용이 있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미 알려진 이슈 가운데 ‘something interesting’을 찾는 일과 달리, ‘something new’를 찾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은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이 흥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느냐는 평가는 결과론적인 탓이다.

위와 같은 해석이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CBS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다른 방송사보다 규모가 적고 직군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CBS는 기자-PD 사이 거리감이 그리 멀지 않다. 실제로는, 두 직종간 정보 공유조차 되지 않아 종종 일을 그르치는 방송사들이 드물지 않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어서, 세계 유수의 방송사도 이해관계가 너무도 다른 기자와 PD는 각기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



현재까지 기자와 PD간 협업 전통을 이어가는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 모습

어 운영하기도 한다.

어쩌면 현재 우리에게 놓인 언론의 위기는 각자 기자의 길만, 또 PD의 길만 고려하는 데서 온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기사는 기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담고 있고,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꼭 직종을 나누지 않더라도 언론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수용자가 듣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균형감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저널리스트들과 대중 사이의 교감과 상호 소통 과정이 곧 저널리즘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 건강한 저널리즘을 위해 서라도 기자와 PD의 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something new’와 ‘something interesting’이라는 두 날개로 저널리즘을 띄워, 때로는 분석적으로 해체하고 때

로는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 우리네 삶을 스스로 살피고 비추는 숭고한 작업이라면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현장에서 취재하는 PD, 스튜디오에서 연출하는 기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박수 받을 만하다. 그러나 기왕이면 기자와 PD가 각기 본연의 DNA는 유지한 채로 협업 모델을 늘려나가는 편은 어떨까.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의 장점은 분명히 이어가되 각자의 한계에 대해 서로간 가까운 지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두 직종간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을 통한 ‘상보적 견제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우당탕탕 쿵쿵대는 기자와 PD의 생기발랄한 충돌이 여러 매체 속에서 활발히 확장돼 가기를 기대한다. 🍀

CBS 김정훈 기자